

한형조 무문관 탐방

12

대통의 성불

*어떤 종이 흥양(興陽) 화상에 물었다. "대통지 승불(大通智勝佛)은 십劫(十劫)의 오랜 세월을 도량에서 참선하고서도 불법(佛法)이 나타나지 않아 성불을 못했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듣고 보니 그렇구나." "그리 오랫동안 참선했는데 어찌서 성불하지 못했을까요." 흥양이 대답했다. "네가 성불을 못했기 때문이다."

*나 해가 말한다. "높은 오랑캐의 지(知)만 인정하지, 회(會)는 용납하지 않는다. 범부도 지(知)이면 성인(聖人)과 다름없고, 성인도 회(會)라면 범부로 떨어진다. *송하여 가로되, '몸을 가다듬는 것이 마음을 깨침만 하겠는가. 마음이 선명하면 몸이 근심이 없는 것을. 몸과 마음이 함께 선명하다면, 신신(神心)이 무엇 하려 봉후(封侯)를 찾겠는가."

興陽讓和尚, 因僧問, 大通智勝佛, 十劫坐道場, 佛法不現前, 不得成佛道時, 如何. 讓曰, 其間甚諦當, 僧云, 既是坐道場, 爲甚麼不得成佛道. 讓曰, 爲伊不成佛, 無明也, 只許老胡知, 不許老胡會, 凡夫若知即是聖人, 聖人若會即是凡夫. 讓曰, 了身可了了心, 了得心身不礙, 若也身心俱了了, 神心可必更封侯.

대통지승은 아득한 옛날,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



동안 참선하고서도 성불을 못하셨을까요." 답답한 흥양이 참다 못하고 이렇게 일러준다. "爲伊不成佛."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길은 두 갈래이다.

- 1) "너 때문에 성불을 하지 않았다."
- 2) "네가 성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했기 때문이다."

처음 해석은 대통지승의 대자대비(大慈大悲)를 강조한다. 중생을 고통과 슬픔의 바다에서 건지기 위해 예비된 복락의 나라를 유보한 보살과 여래의 송고한 발원. 차마 성불하지 못하고 사바에 남아있는 그 눈물겨운 비원(悲願).

그런데 이 해석은 아무래도 덩덤하고 밋밋하다. 일반론적 교리를 확인하는데 그쳐, 상식의 허를 찌르고, 실상을 곧바로 일러주는 충격의 기미가 약하다. 나는 두 번째 해석에 기운다.

성불은 애시당초 성취되어 있다. 그런데 그곳은 의면적 관찰이나 상대적 의식으로는 다가갈 수 없다. 그야말로 은산철벽(銀山鐵壁), 모기가 뚫을 수 없는 철관 소가죽(鐵牛)의 세계. 달마가 9년을 마주하고 있던 벽(壁)이 바로 이곳을 가리킨다. 그래서 해가는 말한다. "높은 오랑캐의 지(知)만 인정하지, 회(會)는 용납하지

法數로 배우는 불교

(22)

오개(五蓋)

어느 여름날, 마을 뒤편에 있는 산속 절 입구에서 한 농부가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었다. 피악법은 내리치고 땅에서는 열기가 후끈대니 농부도 소도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좀 쉬면 좀으런만 밭을 한뼘이라도 빨리 갈겠다는 욕심에 힘은 더욱 들었다.

절에는 스님들이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정연히 앉아 매미 울음 속에서 좌선을 하는 중이었다. 농부는 스님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 공연히 심음이 일어났다. 소 잔등을 힘껏 때리며 "에이 어느 놈은 복이 없어 이런 더위에 소새끼하고 씨름이나 하고 어느 놈들은 팔자가 좋아 방구석에 앉아 즐기나 하니 분통이 터지는구나"하고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농부의 이러한 주님을 스님들이 못들으니 만무했다. 절의 주지 스님이 농부를 찾아왔다.

주지 스님은 "그렇게 힘이 드는 모양인데 우리 한번 바꿔서 해보지 않으려나? 내가 자네의 밭을 갈아 줄테니 자네는 저 방에 들어가 스님들처럼 하고 있거"라고 말했다. 농부는 신이 났다. 당장 그렇게 하기로 하고 밭 가는 쟁기를 스님에게 주고는 선방에 들어가 스님들 옆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런데 웬걸,



탐욕·진애·수면·도거·의법 깨달음 막는 다섯가지 장애

조금 있으니까 졸음이 쏟아져 오더니 허리가 뒤틀리고 발이 저리기 시작했다. 힘이들어 다리를 살짝 뻗으려니까 어깨위로 죽비가 날아왔다. 정신이 번쩍나 농부는 자세를 바로하고 다시 견뎌보려 했지만 이만 저만한 고통이 아니었다. 농부는 속으로 "아 내가 공연히 멋모르고 들어왔구나. 내 마음대로 밭이나 갈 걸"하고 후회를 했다. 그리고 "주지 스님은 밭을 잘 갈고 있을까? 도대체 이 스님들은 무엇때문에 이 짓들을 하고 앉아있담. 이리다고 도를 깨달음의 지(知) 있을까?"하고 의심을 했

없는 다리로 신발을 신고는 뱀다 발로 도망쳐 왔다. 이꼴을 본 주지스님은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왔는가, 좀더 앉아 있으 오지 않고. 밭은 내가 이렇게 많이 갈아 놓았네. 소에게 물도 먹여주고 풀도 뜯겨주면서 일을 시키니까 일이 잘 되더군"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농부는 스님의 이런 말을 듣지 않 듣는지 알든 쟁기를 가로채더니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나 혼이 났던지 소를 향해 꾸짖는 것이었다. "이놈아, 잘 밭들어. 그렇지 않으면 저 지독한 선방에 집어

이것을 오개(五蓋) 혹은 오장(五障)이라고 하는데 욕심내는 탐욕(貪慾), 성내고 노여워하는 진애(瞋恚), 잠자고 싶은 수면(睡眠), 근심하고 혼들리는 도거(掉舉), 법에 대해 의심하는 의법(疑法)이다.

농부의 밭을 빨리 갈겠다는 욕심, 스님들을 보고 성을 내던 일, 졸던 행위, 괴로워 근심하던 마음, 스님들은 왜 이리하고 있나 하는 의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개는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 중생의 맑고 깨끗한 심성을 가려 지혜의 빛을 잃게 하는 좋지 못한 번뇌의 각을들이다. 좌선은 이러한 것들을 조복받고 끊어서 내면의 광명을 얻어 보겠다고 하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네가 성불 못하고 무슨 부처타령"

조주 무자 비슷 "불성이란 허깨비에 홀렸구나"

여 여러(如來)가 되었다. 아들들도 아버지의 감화로 깨달음을 얻어 각각의 국토(國土)에서 법(法)을 설하고 있다. 그 16명 가운데 동방의 아축불과 서방의 아미타불, 그리고 사바세계의 구원자로 온 막내 석가모니가 있다. <법화경(法華經)> 화성유품(化城喻品)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대통지승이 10겁을 가부좌하여 몸과 마음을 부동(不動)시켜도 불법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도리천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 보리수 아래의 사자좌를 열고, 천지를 덮는 하늘꽃, 향기로운 비람, 하늘의 북과 음악을 공양하기를 10겁, 마침내 아늑다라삼삼보리를 얻고 열반에 들었다.

학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대통지승이 어찌서 그토록 오랜 세월을 가부좌하고서도 불법을 이루지 못했는지 의아해한다. 흥양화상의 대답은 흥미롭다. "듣고보니 그렇구나." 흥양은 학인의 질문을 통해 모르던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을까. 그런 것까지는 않다. 흥양이 자신의 무지를 확인하거나 무심함을 자책하는 겸손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학인의 뜬금없는 의의제기, "종을 향이라고 우기는" 그 물지각을 은미하게 질책하고 있다. 흥양의 말 뜻을 알아채지 못한 학인은 여전히 눈을 멀뚱거리며 질문을 반복한다. "어찌서 그리 오랫동안

않는다." 회(會)는 상대적 인식, 너와 나를 갈라 감동과 혼란을 증폭시키는 물든 경계. 이에 비해 지(知)는 나를 개입시키지 않고 대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는(觀) 자각(自覺)의 지속적 파지를 가리킨다.

흥양은 말한다. 모든 혼란은 내가 지(知)를 떠나 회(會)를 일으킴으로써 야기되었다. 성불 여부를 따지는 너의 망상과 분별이 대통지승의 불사의(不思議)한 삼매(三昧)를 교란시키고 있다. 내가 망념(妄念)을 쉬면 법계(法界)는 한맛의 평등(平等)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보니 이 화두는 맨처음의 조주무자(無字)와 꼭 닮았다. 어쩌서 개에게 불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조주는, "내가 딱하게도 불성이라는 허깨비에 홀려 있기 때문"(爲他有業識性)이라고 뒤뚱수를 쳤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마지막 구절의 문장구조가 爲伊不成佛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미심쩍은 얼굴로 입맛을 다시는 사람들을 위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입제는 대통지승의 일을 묻는 학인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불법(佛法)은 본래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不生不滅) 것이라, 현전(現前)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불도(佛道) 또한 이미 성취되어 있는 비에 또 무슨 부처가 된다 말인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불교와 수학

15

불교의 무한 ④

김용운

사람은 유한의 대상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하고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처음 수학의 대상은 무한 세계에 머물고 있다.

유한만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이 때까지 '무한(無限)'의 개념은 한마디로 질서가 없는 것, 실사 정연한 이법(理法)이 지배하고 있다.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인간은 오직 유한에만 생각하고 그 속에서 질서가 순종하면 된다고 믿어 온 것이다. 그러나 무한의 모습이 수시로 유한의 틈에서 엿보인다. 무한도 유한처럼 합리적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을까? 그것은 오랜 옛날부터 지성인간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무한'이 합리적인 사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개념(무한이란 무엇인가?)의 파악이 가능하고, 둘째 무한과 무한 사이의 관계가 정해져야 한다. 무한이 수학(인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크기'에 있어서 그들 사이에서 같은 무한, 작은 무한, 큰 무한 등을 구별할 수 있어야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20

한다. 우선 유한 세계의 같음으로부터 생각하자. 두 개의 집합이 같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1대 1의 대응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과 10개와 접시 10개 사이에는 분명히 1대 1의 대응이 생긴다. 야구 시합에서 A팀과 B팀 사이에 같은 아홉 명의 선수가 출전할 때만 그 게임이 성립하는 것이다.

칸토르(G. Cantor)는 1883년 인류 사상 처음으로 무한이 수학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했다. 1, 2, 3, ...이라는 가장 단순한 자연수계에



같은 분명히 자연수 전체집합의 부분집합에 불과하다. 이 사실은 곧 '부분과 전체'의 같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을 제대로 유한 세계에는 없는 일이다.

유한만을 수학의 대상으로 삼아 온 사람에게는 '전체와 부분이 같다'란 곧 지동설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천동설을 듣게 하는 것과 같이 놀라운 일이다. 칸토르는 이 사실을 발견하자, '나는 분명 보았다(증명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었다'고 절규한다. 백림대학의 저명한 수학자 크로네커(L. Kronecker, 1823~1891)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신은 정수만 창조했다'하여 수학의 대상은 곧 유한이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수학의 대상 유한" 기독교적 사유 불교선 '전체=부분' 무한론 인정

도 무한개의 수가 있다. 그 속에는 2, 4, 6, ... 이라는 짝수만으로 성립되는 수계(數系)가 있는데, 그것 역시 무한개의 요소가 있다. 그뿐만이 3, 6, 9, ... 등의 3의 배수계, 4의 배수계 ... 무한개의 무한집합이 존재한다.

지금 우리가 생각한 자연수계 1, 2, 3, ... 과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짝수계 또는 3의 배수계 사이에도 1대 1의 대응이 생긴다는 것이다.

$n \rightarrow 2n$ 이란 n 과 $2n$ 이 대응된다는 것이다. 결국 n 과 $100n$ 의 대응이 되며 그 논리는 n 에 n 의(德)을 대응시킬 수도 있다.

$n \rightarrow 2n$ (n 은 $2n$ 에 대응한다)
 $n \rightarrow 3n$ (n 은 $3n$ 에 대응한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자연수 전체는 짝수 전체와 1대 1의 대응이 되고, 3의 배수 전체와 대응되고 있다. 짝수 전체의 집합, 3배수 전체의 집

이 안에서 전에도 유대, 기독교의 세계관이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는 만화적임을 실명한 적이 있다. 현대 수학이 개막되는 문턱에서도 무한의 문제는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

그후 수학자는 '무한이란 부분과 같을 수 있는 것(부분과 전체가 1대 1 대응한다)'이라고 정의한다. 무한의 수학적 정의이다.

불교에서는 일찍부터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에서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왔다. 이 사실은 곧 불교의 사유 대상은 처음부터 무한에서 시작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공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교 조각원

서울 종로구 전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대표 이진형 합장